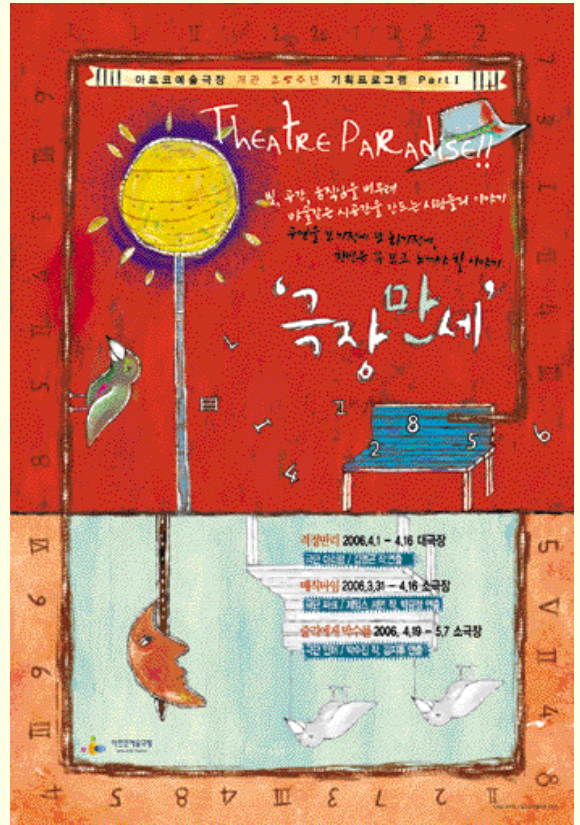


## 아르코예술극장 개관 25주년 기획프로그램 Part I 《극장만세! Theatre Paradise!》

삶의 윤택유인 환상의 시공간을 만들어내는 꿈의 공장인, 극장. 이 공간에서 빛, 공간, 움직임을 바꾸려 환상의 시공간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의 이야기. 아르코예술극장 개관 25주년 기획프로그램 Part I 《극장만세! Theatre Paradise!》는 그들, 공연예술인과 관객에게 바치는 오마주 프로그램이다. 빛이 밝아지면서 창조되는 새로운 세계에 대한 경이에 찬 기대와 희망이 있는 한, 열정으로 그 세계를 만들어내기 위해 뼈를 깎는 고통을 기꺼이 감내할 그들이 있는 한, 아르코예술극장은 영원할 것이다. 극장만세~!!  
종으로는 공연예술인들의 역사를, 횡으로는 그들의 일상과 삶과 꿈에 대한 고민을 그려 내는 공연을 통해 공연예술인과 관객이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이끌어낸다. 진솔한 이해와 소통을 통해 미술 같은 세계를 창조하는 이곳은, Theatre Paradise다.



### 극단 아리랑 「걱정만리」

• 2006.4.1~4.16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

연극인들의 파란만장한 삶, 그리고 걱정에 찬 발자취.  
광대들의 숨소리가 하나둘 살아난다!

1920년대에서 1950년대 한국전쟁까지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행해졌던 연극에 대한 재조명, 그리고 그 중심에서 격정적인 인생을 살아가며 사랑과 삶, 그리고 꿈을 이야기했던 연극인들의 이야기를 무대화한다. 격동의 세월 속에 사라져간 광대들의 생애와 예술이 오늘날 우리 연극사에 거대한 뿌리로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그들의 삶과 그들이 만들어갔던 작품을 극중 극의 형태로 만나볼 수 있다.

### 극단 파크 「매직타임」

• 2006.3.31~4.16 아르코예술극장 소극장

The show must go on!  
분장실과 무대에서 벌어지는 예술적인 순수함과 재미!

「매직타임」은 무대위에서 펼쳐지는 가상의 시공간, 일명 'show time'을 말한다. 상황리에 막을 올렸던 「햄릿」의 마지막 공연을 앞두고 배우들이 분장실에서 나누는 수다와 무대 위에서의 활동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다.  
각기 다른 배우들의 모습들을 통해 우리는 무대 뒤와 무대 위, 두 개의 시공간을 한 무대에서 만날 수 있다. 또한 무대를 사랑하고, 지키려는 사람들을 통해 느낄 수 있는 인간적인 사랑과 그들에게 투영된 우리 삶의 모습과 꿈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 극단 인터 「줄리에게 박수를」

• 2006.4.20~5.7 아르코예술극장 소극장

연극에 입문한 불안한 젊음에 대한 따뜻한 박수  
고전극에 해체와 현대적 감각

자신의 꿈과 열정을 가지고 때로는 치열하게 때로는 아쉬움과  
체념으로 시간을 매워 가며 견뎌나가는 젊은이들의 삶과 사랑.  
「줄리에게 박수를」은 2004년 초연부터 관객들에게 신선한 반향을  
일으키며 호응을 받아온 젊고 재치 있는, 하지만 경박하지 않는  
새로운 느낌의 로맨틱 코미디이다. 고전에서 빼놓을 수 없는  
셰익스피어의 작품 「햄릿」과 「로미오와 줄리엣」을 현대적 공간과  
감성으로 해체하고 재구성하는 모미를 찾아볼 수 있다.



## 아르코예술극장 개관 25주년 기획프로그램 Part II

### 《Made in 아르코예술극장 2006》

극장이 태부족이었던 시절 공연 공간의 원활한 제공, 즉 대관의 역할이 우선이었던 아르코예술극장 25년의 역사는 60여 개의 소극장이 들어선  
대학로라는 공연문화의 거리를 만들어냈고, 공연 문화의 가치가 높아지면서 공공극장들이 속속 들어서는 시대로 달려왔다.

이에 아르코예술극장은 극장의 브랜드 가치의 제고가 공연예술인들과 관객들을 위해 할 수 있는 극장의 역할이라고 규정짓고 좀더 적극적이고 장기적인  
기획방향을 잡고, 질적으로 수준 높은 공연을 만들어내어 극장의 브랜드가치를 높일, 직접 제작 방식을 택하였다.

이름 하여 'Made in 아르코예술극장 2006'. 한국 연극의 새로운 기수라고 평가 받고 있는 극단 여행자의 양정웅 연출가와 함께 소설로도 잘 알려진  
「미실」을 제작한다. 양정웅 작의 「미실」은 2005년 「월간 문학」 희곡상을 수상한 작품이다. 총 3부작으로 계획 중이며, 이번 공연은 그 1부작에 해당한다.  
이미 세계적으로도 인정받은 양정웅만의 특유의 연출 방식은 화려하면서도 아름다운 「미실」을 창조해 낼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기획프로그램은  
사반세기의 역사를 기반으로 새로운 목표를 향해 내딛는 그 첫 발자국이 될 것이다.

## 극단 여행자 「미실」 - 제1부 영혼을 울리는 아름다운 사랑

• 2006.4.24~5.7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

시대를 뛰어넘는 사랑의 전주곡

「미실」, 7가지 사랑을 노래하다

한국역사상 가장 화려하고도 고도의 스킨들을 낳았던 여인  
화랑세기는 미실을 “백 가지의 꽃의 영겁이 뭉쳐 있고 세 가지의  
아름다움의 정기를 모았다고 할 수 있다”고 극찬했다.

첫사랑인 사다함, 친구 같은 사랑을 나눈 세중, 아버지처럼 아낌없는  
사랑을 베푼 진흥, 어머니처럼 보듬어야 했던 어린 동륜, 목숨과 맞바꾼  
사랑 설원랑, 그리고 동생 미생과의 위험한 관계까지 하나의 사랑마다  
의미 있고, 진실하게 사랑하였던 미실의 일곱 가지 사랑의 노래가  
2006년을 아름답게 수놓을 것이다.

